

# 서울시 “생명나눔 문화 확산되길 바라”

서울 장기기증자에 비해 이식대기 환자가 훨씬 많아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기증 대기 환자가 하루 평균 3.29명씩 숨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전국 3만763명, 서울은 6815명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장기기증자는 전국 2810명, 서울 529명에 그쳤다.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뇌사 시 장기 기증 ▲사후 각막 기증 ▲살아있을 때 신장 기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장기기증 서약이 가능하다.

뇌사기증은 뇌사 시 9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청계광장서 서울 장기기증의 날 행사 성료

장기기증 대기 6815명...기증자 529명 그쳐

전국 이식 대기환자 하루평균 3.29명 사망

2개)을 구할 수 있는 장기기증이다. 사후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 만 가능하며 생후 6개월~85세까지 전염성 질환이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장기증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이 만성신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하나의 신장을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이다.

시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청계광장에서 제5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시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개최했다. 국내 최초 장기기증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홍보대사 현영, 에마씨가 자녀와 함께 참석해 직접 그림책을 낭독하며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장기기증의 뜻을 소개했다.

‘두근두근 심장의 비밀’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박현진씨의 재능 기부로 제작한 그림책이다. 심장

이 기증인의 몸에서 이식인의 몸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여행처럼 그려 장기이식을 쉽게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행사장에는 장기기증인들의 이름을 새긴 ‘생명나눔 나무’가 전시된다. 유가족과 이식인들이 직접 장기기증 필요성을 알렸다.

시는 2014년 조례를 개정,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9월9일을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장기기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고통받는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생명의 약속이다.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장기기증 등록은 온라인,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천 부동산시장 1년만에 후끈...왜?

경기도 부천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만 해도 아파트공급을 앞두고 분양시기를 고민해야 했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아파트시장도 2년 연속 거래량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전세가 비율도 일부 지역은 80%를 훌쩍 넘어섰다.

4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부천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통틀어 2개 단지에서 274세대(일반분양 기준)로 청약자는 1·2순위를 합해 401명에 불과했다. 부천 중동 효성해리던 플레이스만 순위내 청약에 마쳤을뿐 나머지 계남 랑데부는 미달로 청약에 미쳤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현재 79.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천 일부지역(송내동, 중동, 상동, 소사본동)은 여전히 80% 이상이다. 전세가 비율은 매매가에서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곳은 의왕(84.0%), 군포(83.7%), 용인(81.7%), 과주(81.4%), 부천(80.0%) 순이었다. 이 기간 경기도 평균 전세가 비율은 76.5%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천 부동산 상황이 좋은 이유로 서울 접근성을 꼽는다. 경인로 1호선, 7호선을 이용하면 서울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반면에 집값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 1호선 중동역을 출발해 용산역까지 약 35분, 7호선

신중동역을 출발해 송내역까지 약 35분(이수역)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된다. 7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000만원이 넘는 2409만원이지만 부천은 1104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에서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송내 1-2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분양을 미루고 마케팅에 충실했던 만큼 적지 않은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부천은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부천은 그동안 서울 위성도시 정도로 인식됐지만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서울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올 하반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천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8월 현재 4개 단지 분양, 청약자 1만6000명 달해

전문가 “서울 접근성 좋고 정부 규제 배제도 호재”

까지 총 4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이때 공급된 세대는 863세대(일반분양 기준)로 지난해 대비 공급량은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청약자는 지난해 대비 40배 이상 늘었다. 4개 단지에 모인 청약자가 무려 1만6652명에 달한다.

최근 공급된 힐스테이트 중동(1만598명)으로 몰린 청약자가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천 분양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다.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5199건이다. 2016년 1만5000건 이상(1만5255건)의 아파트가 거래가 있었던 만큼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월부터 6월까지 부천에서 있었던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8181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전세가 비율도 고공행진중이다. 2016년(80.1%)과 2017년(80.0%) 2년 연속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8월은 조금 빠진

신중동역을 출발해 송내역까지 약 35분(이수역)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된다. 7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000만원이 넘는 2409만원이지만 부천은 1104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에서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송내 1-2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분양을 미루고 마케팅에 충실했던 만큼 적지 않은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부천은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부천은 그동안 서울 위성도시 정도로 인식됐지만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서울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올 하반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천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 학생·학부모 63% “무상교복은 현물로”

초6년 학생 최다...처음 접하는 교복 기대



경기도의회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 위한 공청회

경기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무상교복을 '현금'보다는 '현물'로 받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제2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 9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학생이 6049명(초 6년 1957명, 중 3년 4092명), 학부모가 3334명(초 6년 1305명, 중 3년 2029명) 참여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의 63.0%(5909명)가 '학교가 직접 교복 제공'(현물)을 선택했다. 학교가 교복 구매 비용 지원(현금)을 원하는 응답자는 37.0%(3471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은 63.2%(3823명), 학부모는 62.8%(2086명)가 '현물'을 원했다. '현물'을 선택한 응답자는 초 6년 학생이 71.3%(1395명)로 가장 많았다. 처음 접하는 교복에 대한

기대로 '현금'을 원할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초 6년 학부모도 압도적으로 '현물'(68.7%·896명)을 선택했다.

중 3년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59.3%(2428명), 58.7%(1190명)가 '현물'을 원했다.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80.0%(7451명)가 교복 착용에 찬성했고, 또 절대 다수인 96.8%(9078명)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2 교육위는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현물 vs 현금' 논란이 교복 업계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청회에 이어 설문조사

를 했다. 제2 교육위는 이달 12일 열리는 제3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조광희(민·안양) 제2 교육위원장은 “8개월을 끈 해당 해당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며 “공청회와 설문조사 결과는 심의에 참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감리 마케팅조경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원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